

Kodam XIII/Merdeka Siapkan 150 Atlet Yongmoodo Untuk PON 2021



대한민국 창작 무도인 용무도의 2020년 인도네시아 전국체전 정식종목 채택을 보도한 현지 언론.

한국이 종주국인 ‘용무도’
인니 전국체전 정식 종목

2020년부터 채택...4년마다 개최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 창작 무도인 용무도의 위상이 날로 올라가고 있다. 육군의 군용무술로 지정된데 이어 2020년 파푸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종주국인 대한민국에서 홀대받는 무술이 인도네시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대목이라 눈길을 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인도네시아 베리타’ 등은 최근 “용무도가 사상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2008년 5월 가토 준장 등 육군 무술 관계자들을 용인대학교에 보내 용무도 시범을 관전하고 3개월 뒤 군용무술로 채택했다. 한국인 사범의 파견을 공식 요청한 시점이다. 이후 인도네시아 육군 합참의장이 자연스럽게 인도네시아용무도협회장을 겸임하게 됐다. 육군이 매년 참모총장배 용무도대회를 개최하고, 육군사관학교와 대통령 경호실에서도 용무도를 배우는 등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자 인도네시아 국가체육위원회(KONI)가 2020년 파푸아 전국체전부터 용무도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전국체전은 4년에 한 번 열리는 체육인의 축제다.

강산 기자

용무도란?

유도·레슬링·태권도·복싱
장점들만 뽑아서 만든
다이내믹한 실전 종합무술

용무도는 김정행 전 대한체육회장과 용인대학교 무도학과(현 무도체육대학) 교수들이 2001년 만든 무술이다. 1992바르셀로나올림픽 유도 남자 65kg급 은메달리스트인 윤현 용인대 유도학과 교수가 세계용무도연맹 전무이사를 맡고 있다.

유도를 비롯해 태권도, 레슬링, 합기도, 복싱 등 격투기 종목의 장점을 뽑아 만든 무술의 종합선물세트와 같고, 도복 색깔은 청록색이다. 일반적인 무도 종목에선 금지된 급소 가격과 십자로목비틀기 등의 기술이 포함돼 있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술이라 호신술로도 인정받았다.

실전 경기에서는 허리를 굽힐 수 없고, 잡아 던지기 등의 기술이 가능하다 보니 박진감이 넘친다는 평가다. 여러 대학교의 사회체육학과와 경호학과, 무도학과 등에서 용무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산 기자

편집 | 인도영 기자 do02@donga.com

용무도를 세계인의 무도로! | 창시자 김정행 전 대한체육회장이 말하는 비전

“용무도로 대학 진학·국제대회 출전도 가능”

용인대 총장시절 교수와 함께 만들어 급소 가격 기술 포함...호신술로 제격 인도네시아 경호원 90% 용무도 수련 미국 유도·태권도 도장서 지도하기도 전세계인의 무술로 발전시키는 게 꿈

김정행(75) 전 대한체육회장은 용무도 창시자다. 대한민국 유도의 대부로 잘 알려진 그가 용인대학교 총장 시절인 2001년 체육대학 교수들과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무술을 연구한 결과다. “미국에서 보고 느낀 게 있다. 현지인들이 태권도 체육관을 개관하고 지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살기 막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새로운 무술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용무도가 탄생했다. 최근 서울시 송파구 대한유도원에서 김 전 회장을 만나 용무도의 탄생 비화와 비전을 들었다. 그의 말 마다마디에 용무도에 대한 자부심과 종주국에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동시에 묻어났다.

-용무도를 창시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2001년 당시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전임



용무도 창시자인 김정행 전 대한체육회장은 최근 스포츠동아를 통해 “한국에서 담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용무도의 위상이 아쉽다”고 털어놓았다.

김종현 기자 won@donga.com

교수들이 60명 정도 됐다. 무도대학과 체육대학 교수들이 함께 새로운 무술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 유도과 레슬링, 태권도, 복싱 전문가들을 모두 불러 모았고, 각

무술의 특징에 대해 발표했다. 그렇게 용무도를 만들었고, 외국에 전파했다. 한국 경호원들은 유도와 태권도를 많이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선 90% 이상이 용무도를 한다. 군인들을 통해 전파했는데, 장군들이 매력을 느끼더라.”

-용무도의 매력은 무엇인가.

“유도의 조르기과 꺾기, 태권도의 발 기술 등을 모두 종합한 무술이 용무도다. 무술로서 가치가 크다. 그래서 세계연맹과 아시아연맹을 모두 설립했다. 내가 용인대에 있을 때는 용무도가 성행했다. 경찰을 뽑을 때도 유도와 태권도, 검도에 용무도까지 포함해 특채를 진행했던 기억이 난다.”

-여전히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선 용무도의 인지도가 높지 않다.

“지금은 담보상태에 있다. 사람이 있어야 한다. 세계 스포츠연맹의 예를 들어보자. 일본은 유도를 했던 사람이 나중에 스모를 하기도 하는데, 용무도 또한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나도 4~5년간 관심을 못 가졌다. 젊은 친구들에게 맡겨놨는데, 아직 완벽하게 만들지 못했다. 워낙 활동이 없다 보니 많이 묻힌 감이 있다.”

-그때도 용무도 창시자의 자부심이 있을텐데. “용인대 입학 을 위해서 일부터 용무도를 수련하는 학생들이 있다. 내가 총장으로 있을 때 ‘많이 뽑으라’고 해서 정식 선수를 많이 뽑았고, 붐이 일었다. 윤현 용인대 유도학과 교수도 세계용무도협회 전무이사를 맡고 있다. 대한체육회장 시절에 대한 용무도협회가 준가맹단체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게 안타깝다. 용무도 집행부도 곧 퍼즐이 맞춰질 것이다. 용무도를 실제로 보면 역동적인 장면이 많이 나온다. 미국에도 태권도와 유도체육관을 운영하며 용무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많다.”

-용무도 입문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부탁한다.

“인식을 바꿔야 한다. 대학교 갈 수 있고, 국제대회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유도와 태권도도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는데, 같은 모델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 오히려 기술은 유도와 태권도보다 더 다양하고, 씨름기술도 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이 연맹의 대표로 있으면 반드시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 무도로서, 호신술로서 가치도 굉장히 크다. 세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용무도를 연마하고 있는 학생들이 서로 기술을 구사하고 있다. 용무도는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오른쪽 사진은 대회 실전경기 장면.

사진제공 | 대한용무도협회

용무도의 세계화, 새 기술 개발·32개 회원국 관리 중요

인도네시아 용무도 대부 김태화 회장

대통령 경호실·특전사 사범 배치 등 오랜 노력 끝에 인도네시아에 정착 지금은 육군 50만명 의무적으로 수련

“다른 사람들이 노력했죠. 나는 한 게 없습니다.”

김태화(56) 재인도네시아 한인용무도협회장은 직함 그대로, 인도네시아 용무도의 대부로 통한다. 뛰어난 사업 능력을 자랑하는 김 회장이 용무도 보급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니 현지인들도 그 진심을 외면하지 않았다. 최근 용인대학교 무도체육대학에서 만난 그는 몇 번이나 “내가 시작한 게 아니다. 나보다 먼저 용무도를 인도네시아에 전파한 분들이 계신다”고 공을 돌리면서도 ‘현지에서 용무도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유쾌하게 웃었다. 남다른 자부심이 느껴졌다.

-인도네시아서 용무도의 인기는 어느 정도인가.



김태화 재인도네시아 한인용무도협회장이 최근 스포츠동아와 만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체감하고 있는 용무도의 위상을 역설하고 있다.

김종현 기자 won@donga.com

“약 12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 용무도를 전파하기 위해 용인대를 방문해 연수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지회장을 맡아 체계를 갖췄을 뿐이다. 인도네시아 용무도협회 회장은 합참의장이

고, 내가 민간인 회장이다. 전군이 총 61만 명인데, 육군이 50만명이고, 해군은 7만명, 공군은 4만명이다. 육군은 의무적으로 용무도를 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전통 무술인 펜카실랏과 비교하면.

“군에는 펜카실랏보다 용무도가 훨씬 많이 보급돼 있고, 민간도장도 2개가 개관했다. 한 도장에 관원들이 300명씩, 총 600명이다. 시골이든 대도시든 군복을 입은 사람에게 ‘용무도?’라고 하면 누구든 바로 ‘용무도!’라고 답한다. 인도네시아에서 그 정도의 인지도다. 현지 해군과 공군, 해병대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고려하는 단계다.”

-정착하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았을텐데.

“인도네시아인들도 처음에는 용무도에 대해 잘 몰랐다. 그래서 용인대 용무도학과 졸업생들을 데려가서 대통령 경호실과 공수특전사,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사범으로 배치했다. 자비로 보냈다. 지금도 인도네시아에 상주하는 사범들 월급은 내가 준다. 훈련을 하려면 매트리스가 필요한데, 한 부대당

설치비용만 3000~4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부대마다 다 해줬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용무도 사범이 12명 정도였는데, 자리를 잡기까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인도네시아군에서 용무도의 위상이 엄청나다.

“인도네시아 군대에서 ‘용무도가 우리에게 딱 맞다’고들 한다. 실전 무술이라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운동이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군에 딱 맞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실에선 매일 훈련을 시킨다. 모든 경호원들이 용무도를 한다. 집급을 위한 제1의 조건이 용무도 수련 여부다.”

-용무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은.

“무술은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 4~5년 전 기술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새로운 기술이 한국의 본부와 함께 가계끔 해야 한다. 국내에도 시·도 협회는 체계적으로 잘 갖춰졌다. 경기위원장, 심판위원장 등이 함께 경기 진행상황을 보고, 용무도가 보급된 32개국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잡아줘야 한다. 세계연맹의 역할이 그것인데, 아직 미약하다. 현지에서 5~6시간 걸려 출장을 가게 되면, 일부터 물어본다. 마나면 시골에서도 마찬가지다. 용무도에 대해 다들 알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다. ‘자세를 취해보라’고 하면 보여준다.”

강산 기자